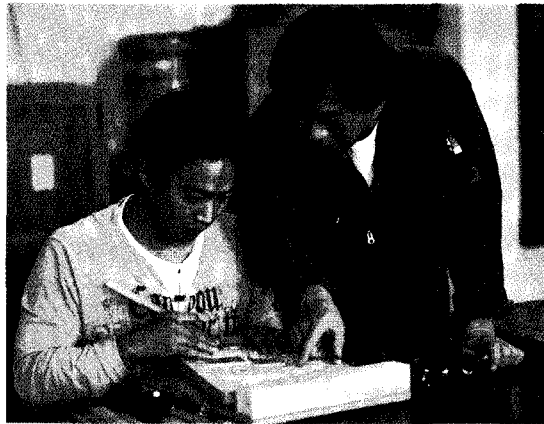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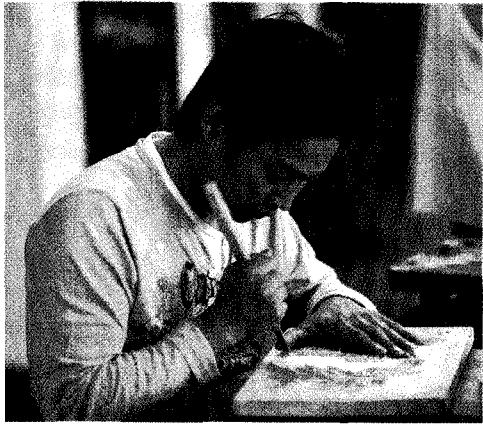


“산재근로자들에게 희망 주고 싶어”

취재 | 연슬기 기자
취재지원 |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2003년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금상, 2006년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금상, 2006년 국제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국가대표 선발, 2007년 세계기능올림픽대회 목공예 부분 세계 1위 수상. 이 화려한 기록들은 어느 촉망받는 목공예가의 수상 기록이 아니다. 이 기록들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를 입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목공예의 길에 들어선 산재근로자 김민재씨의 피와 땀의 일기다.(위에서 열거한 각 대회들은 장애인 대회임을 밝힌다)

“그는 우리의 자랑이자 희망”

10월 15일 오전 11시경 인천중앙병원 재활치료센터내의 목공예실.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순간 공예실에 있던 모든 이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간다. 조용했던 목공예실이 그로 인해 순식간에 들썩였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작품을 들고 가 그에게 품평을 해달라 조르고, 또 어떤 이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매달리며 한 수만 가르쳐 달라고 조른다.

그를 대하는 여타 환자들의 시선에는 무한한 따스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를 이토록 반기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한 산재환자가 “그는 우리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답한다. 이제 갓 서른을 넘겼을 정도의 남자가 모두의 자랑이라니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뒤 조각칼을 집고 거침 없이 목판을 다듬어 나가는 그의 손길과 눈빛을 보니 그러한 평가가 헛말이 이념을 느끼게 했다. 손길은 섬세하나 강하게 뻗어나갔으며, 눈빛은 담담하지만 흔들림이 없다. 그는 국내외 각종 장애인기능대회를 석권한 세계 최고의 목공예 명장이자 산재근로자 김민재씨(38)다.

스물일곱 나이에 하반신마비환자가 돼???

김민재씨가 사고를 당한 때는 지난 1998년이다. 당시 그는 전남 광양에 위치한 한 공장설비제조회

사를 다녔다. 공장을 구성하는 설비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무거운 쇳덩어리를 나를 때도 많았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기에 '안전'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었다. 매일 아침 마다 전 직원이 모여 안전체조를 실시했으며, 작업에 앞서선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행됐다. 하지만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김민재씨를 포함해 총 40명의 근로자가 탑승해 있던 통근 버스가 출근길에 5미터 언덕 아래로 굴렀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탑승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에서도 김민재씨는 손가락 다들 정도로 부상정도가 심각했다. 긴급히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된 후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김민재씨는 척추골절로 인한 하반신마비환자가 됐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스물일곱이었다.

세계 최고의 목공예 명장에 등극

앞길 창창한 스물일곱의 청년이 한순간 하반신마비환자가 됐다. 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활기찼던 청년은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늘 병실에만 누워있었다. 특히 그가 있던 병원은 재활치료전문병원이 아니었기에 주변엔 그와 같은 산재환자도 없어 늘 외로웠다. 이때 그의 한 친구가 산재환자를 위한 재활치료병원인 인천중앙병원을 소개해 줬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면 덜 외롭겠단 생각에 김민재씨는 곧 병원을 옮겼다. 인천중앙병원의 다양한 재활치료 중 그는 목공예를 택했다. 조각칼과 나무만 있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단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의 '함'과 '슬픔', '의지' 등 모든 감정을 목공예에 쏟아 부었다. 남은 삶을 걸고 매진하는 그의 목공예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다. 경험 차 나선 지역 대회에서 단숨에 금메달을 거머쥐더니 이어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국가대표로 선출됐다. 그리고 이어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1위를 수상했다. 눈물과 한숨 속에 절망의 나날을 헤매던 한 젊은 산재환자가 세계 최고의 목공예 명장이 된 것이다.

김민재씨는 현재 자신의 작품활동을 넘어 다른 산재환자들을 돕기 위한 일을 모색하고 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목공예 전시회 또는 목공예 교실 등을 열어 산재환자들이 산재의 고통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이런 그의 꿈이 어서 빨리 이루어져 많은 산재환자들이 슬픔을 딛고 웃음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



산재근로자 김민재 씨

“자신을 가꾸세요.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처음부터 목공예를 제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랜 병원 생활의 무료함이나 달래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각칼을 잡고 목판을 조금씩 깎아낼 때마다 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조각이지만 제가 이 나무를 깎고 다듬음으로써 이 나무는 하나의 작품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이 때 들더군요. 나 역시 죽은 몸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간다면 새 생명이 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부터 목공예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대회의 수상은 그저 이런 과정에서 따라온 부산물일 뿐입니다. 자신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가꾸세요. 분명히 새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